

출협 새해 사업계획, 예산안 확정

지난 22일 제45차 정기총회서... 회장선거 위한 전형위원 선출도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치러진 45차 출협 정기총회.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 제45차 정기총회가 지난달 22일 여의도 중소기업회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전국 총 1,017개 회원사 중 670여개 회원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총회는 권병일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총회사록 서명인 및 서기·감찰 선임, 제44차 정기총회 의사록 승인, 감사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회원사 대표들은 지난 91년도에 사무국이 집행한 사업보고를 듣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지결산보고안을 원안대로 승인 통과시켰다.

한편 92서울도서전과 출판유통현대화 추진 등의 중점사업과 출판용어통일안·한글 한자코드체계 연구 및 남북출판교류 협력사업 등의 신규사업이 추가된 92년도 사업계획서안을 승인하고 보통회비와 이사특별회비가 인상된 회비책정안도 함께 승인했다. 또한 일반회계 수지예산서와 회관관리·출판대학의 특별회계 수지예산서로 구성된 92년도 수지예산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임기중 마지막 총회를 주재한 권병일 회장은 "그동안 출판대학 운영과 도서상품권 및 5년만에 부활된 서울도서전, 그리고 ISBN·POS제도 실시를 통해 회장으로서의 보람을 느꼈다"면서, "양적 성장에 버금가는 내실을 기하기 위한 장·단기 목표를 세워 협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출판진흥을 위한 정책지원을 유도하는 일대혁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새로 선출될 신입회장과 회원사간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총회에는 회장선출의 직선제를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이 상정됐는데, 소위원회 구성을 놓고 회원들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신입회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통해 연내에 정관개정 작업을 마치기로 의결했다.

이어서 벌어진 회장선거를 위한 전형위원 선출투표에서는 총 647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모두 8명을 뽑은 뒤 총회를 마감했다. 이들 전형위원들은 2월6일 다시 73명의 이사를 선출하며 이사회의를 거쳐 신입회장이 결정된다. 45차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전형위원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나춘호(예림당 대표) ▲김춘근(정현출판사 대표) ▲황수원(갑인출판사 대표) ▲강희일(다산출판사 대표) ▲임홍조(영재교육사 대표) ▲김주목(대광서림 대표) ▲이승하(성광문화사 대표) ▲박태근(한신문화사 대표) ▲권병일(지학사 대표·당연직) 이상 9명

교보문고 재개장일 3월로 연기

교보문고(대표 박효근)의 재개장이 다시 3월말로 연기됐다.

당초 지난해 12월말경을 개장에 정일로 발표했던 교보문고는 첨단시설 도입에 따른 설계변경과 자재도입의 차질을 이유로 금년 2월로 예정일을 미루었다가 또다시 3월로 늦춘다고 발표했다. 신입 박효근사장에 따르면 "일정을 지키기 위해 지난 연말부터 현재까지 철야작업을 벌여왔지만, 인력난에 자재난이 겹쳐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되었다"고

교보문고는 종전보다 7백여평이 넓어진 2천2백평 규모로 매장을 확장하고 전시체계도 완전 개가식으로 단위매장도 21개로 세분화한 백화점식 조별체계를 갖추기 위한 개·

보수공사를 총 공사비 50억여원을 투입해 지난해 6월부터 공사를 벌여왔다.

표절시비 휩싸인 「소설 동의보감」

90년대 최고의 베스트셀러인故 이은성씨의 유고작 「소설 동의보감」(창작과 비평사, 전3권)을 둘러싼 표절시비가 법정소송으로 번졌다.

한의서의 고전인 「동의보감」의 저자 허준의 일대기를 소설화해 90년 3월 발간된 후 현재 2백만부가 넘게 팔린 「소설 동의보감」의 표절시비는, 지난해 12월과 올초에 출판된 「소설 어린이 동의보감」(산울림, 전2권) 「허준과 동의보감」(꿈동산)이 이은성씨의 작품을 유색한 것이라고 유족과 출판사측이 주장하면서 비롯됐다. 이들은 이 두종의 책이 "어린이용이라는 명목으로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약없이 출판된 베끼기 도서"라고 비난했으며, 이에 대해

「허준과 동의보감」 등의 저자·출판사측은 "88년 향토위인문고 간행회에서 나온 「한국인물사」 등의 자료에 기초해 쓴 창작품이지 표절은 절대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유족측은 한승헌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위임해 이 두종의 도서에 대한 판매정지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 그 결과에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임인수씨 문화가족 신전상 수상

문화부가 제정한 문화가족 신전상에 한림출판사 대표 임인수씨가 결정됐다.

수상자 임인수씨는 62년부터 어학·문학·전통공예 등의 도서를 펴냈으며, 특히 영어와 일어로 쓴 한국인의 전통문화와 역사를 소개하는 도서 80여종을 출판해 해외에 널리 보급해왔다. 또 해외동포 2세들에게 한국의 역사를 소개한 「한국의 5천년」 「I Love Korea」 등도 출판했다.

“복제권기구 설립해 대응책 세워야”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세미나서 각국 대표들 지적



출협주최 국제복제권기구연맹 서울세미나 전경.

국제복제권기구연맹(IFRRO) 초청 세미나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권병일) 주최로 지난달 14일 협회관에서 개최됐다.

‘복제권기구의 목표, 활동과 운영’을 주제로 열린 이 세미나는 복제권을 효율적으로 보호하고자 구성된 IFRRO의 F. 벨리카르회장(독일) J. 알렌 사무국장(미국)을 비롯해 T. 코스키넨(핀란드) 프레이저(호주) 등 각국 복제권기구 관련자 6명의 주제발표와 참가자들과의 자유토론으로 진행됐다.

복사기의 대중보급으로 무단복제 문제가 심각한 출판저작물에 관한 토론이 집중적으로 이뤄진 이날 세미나에서는 음악·사진 등 시각저작물의 경우도 거론됐으며, 복제권기구의 상설과 운영에 필요한 법률 및 재정적 조치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날의 발표 및 토론내용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복제권기구가 구성된 것은 전세계적으로 75만대에 이르는 복사기를 이용한 수습업권의 불법복사가 성행하는 사태를 수습하고 지적 재

산소유권을 집행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즉 이용자들이 개별적으로 저작자 각각에게 복사허락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복제권기구는 복사에 있어서 출판사와 사용자를 연결시키는 계약을 맺도록 중계하는데, △분량지정 △부수계약 △내부사용에 한한다는 세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저작자로부터 복제권을 얻어내는 방식에도 세가지가 있는데, 첫째 자발적 계약에 의한 방식, 둘째 법으로 정하는 방식, 셋째 자발적 계약과 법을 함께 사용하는 방식이 그것으로, 저작의 독점권을 위해서는 자발적 방식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획득한 복제권을 바탕으로 저작자를 대신해 저작료를 징수하는 것이 복제권기구의 역할로, 사용료의 적정한 책정과 징수방법 및 분배방법 등은 각국의 실정에 따라 다르게 시행된다. 이때 유의할 점은 복제권기구를 출판인에게 위임하더라도 저작권의 효율적인 보호와 배분을 위해서는 저작자가 포괄적으로 참여해야 하며, 복제권은 출판인이 갖고 있으나 기구의 정책결정은 저자와 출판사가 다같이 만족해야 한다. 복사는 학교·기업체·도서관·복사업체는 물론 정부기관에서도 무단으로 행해지며 복제권기구가 설립되지 않은 한국도 한시바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범우사, 「책과인생」 3월 창간

도서출판 범우사(대표 윤형두)는 양서소개를 다룬 신간정보지 「책과인생」을 오는 3월 창간한다.

이번 창간호는 책읽기에 관련된 에세이로 꾸며지는데, 총 30여명의 문인·학자들이 쓴 책이 있는 에세이가 실린다. 「사색의 창가에서」 「서재단상」 「비평가의 책읽기」 「나의 애장본」 「책 모으는 재미」 등으로 나뉜 에세이뿐 아니라 베스트셀러 뒷이야기, 저작권 관련기사 등도 함께 실려 월간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정성구박사 올해의 애서가상 수상

한국애서가클럽(회장 여승구)이 매년 선정, 시상해온 '올해의 애서가상' 92년도 수상자로 정성구박사(충신대학 신학대학원장)가 결정됐다.

현재 한국칼빈학회 총무이기도 한 정성구박사는, 칼빈 관계문헌을

수집해 기독교연구에 크게 공헌하였으며 서양고서의 불모지에 세계적 수준의 장서를 갖추어 원전담구의 새 학풍을 형성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자로 선정됐는데, 16~19세기의 칼빈 자료와 칼빈 및 칼빈주의 사상 자료책·연구논문 4천여권을 포함한 6천여권의 도서를 소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상식과 기념강연회는 지난달 31일 하오6시 종로구 신문로에 위치한 한국출판무역(주) 전시장에서 열렸다.

인천에 인포어린이도서관 건립돼

전국의 낙후된 지역에 거주하는 어린이들의 정서향양을 돕기 위해 도서관을 건립하고 있는 에스콰이어 그룹(회장 이인표)은 인천시 북구 삼산동 삼산종합복지관 내에 '인포어린이도서관'을 세워 지난 21일에 개관식을 가졌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도돼 눈길을 끌었던 인포어린이도서관은 90년 5월 상계동에 건립된 이래, 부산·광주 등지에 계속 세워져 이번이 열번째이다.

동화 「가우디의 바다」 원화전 개최

현대사회의 비인간화와 환경파괴를 고발한 일본작가 다지마 신지씨의 동화집 「가우디의 바다」(정신세계사)의 출판기념회를 겸한 원화전이 지난 23일부터 28일까지 출판협회 전시실에서 6일간에 걸쳐 열렸다.

아시아문화교류연구소가 저자 다지마 신지씨와 삽화를 그린 부인 다



「가우디의 바다」원화.

지마 가즈코씨를 초청해 이루어진 원화전시회에는 한국어판을 위해 새로 그린 「가우디의 바다」 원화 및 엽서작품 30여점이 전시되었다.

「가우디의 바다」는 수족관에서 탈출한 바다거북 가우디가 해저 핵실험을 저지하다 끝내 숨진다는 내용의 표제작을 비롯해 6편의 단편들로 엮여진 책인데, 아시아·태평양

의 10개국에서 15개국어로 번역 출판됐다.

시인 문덕수씨 새 펜클럽회장에

제27대 국제펜클럽한국본부회장에 시인 문덕수씨(64)가 선출됐다.

지난 9일 서울 천도교 수운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를 통해 실시된 회장단 선거에서 문덕수씨는 4백29표를 얻어 2백12표를 얻은 소설가 정을병씨를 2백17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으며, 부회장은 이현복씨(서울대 교수) 윤종혁씨(시인) 신세훈씨

(시인)가 선출됐다.

홍익대 국어교육과교수로 재직하면서 펜클럽부회장을 역임했던 문덕수씨는, 당선인사를 통해 "한국문학의 해외진출사업을 위한 국제문학교류연구소를 설치하고 펜클럽이 운영하는 출판사와 월간 문예지 「펜문학」을 발간하겠다"면서, "북한의 국제펜클럽 가입을 돕겠다"고 밝혔다.

1928년 경남 함안 태생인 문덕수씨는 56년 「현대문학」지를 통해 시인과 문학평론가로 등단했다.

CD-ROM 국산품 개발 시급하다

전자출판연구회 발표회... 産學 공동노력 밀거름돼야



전자출판연구회가 주최한 제11차 연구발표회.

한국전자출판연구회(회장 허창성)가 전자출판시대를 맞아 기초개념 정립과 세계동향을 알리기 위해 마련한 제11회 연구발표회가 지난 달 24일 하오3시 출렁강당에서 열렸다.

「전자출판물이란 무엇인가 : CD-ROM의 개발현황과 개발방안을 중심으로」란 주제로 모두 6명의 발표자가 나선 이 연구발표회에는 삼성전자와 큐닉스에서 직접 실물을 설치해 실연을 통한 설명회도 가졌다.

첫 발표자로 나선 김희락씨(한국출판연구소 사무국장)는 기존출판물의 전산화에서 시작돼 정보제공시스템으로 발전한 전자출판의 정의와 전자출판물의 종류, 그리고 정보사회에서의 출판산업에 대해 설명했으며, 국제전자북출판협회(IEBPC)의 창설 등 최근의 세계 전자출판계에 대한 소개는 허창성씨(평화출판사 대표)가 맡았다.

한편 홍영표씨(교보문고 해외산업학술 정보자료실 대리)는 CD-ROM의 개발과 특성을 요약하면서 "88년 국내에 첫선을 보인 CD-ROM은 현재 국내의 대학도서관·대학병원·대기업 등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약 1천대가량의 드라이브가 보급되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하다"며 대중화를 위해 국산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발표한 김수신씨(큐닉스 마케팅 기획관리본부 과장)는 자사가 개발한 '성경 라이브러리'와 '다이나믹 잉글리쉬'에 대한 기능·운용체계 등을 소개했다.

「CD-ROM 유통촉진과 개발방안」을 발표한 이영욱씨(이지컴퓨터 대표)는 "서점의 판매 노력과 상설 전시장을 통한 홍보활동으로 유통을 촉진시키는 한편, 산업체와 학계의 공동노력을 밀거름으로 국산개발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문화저작상 수상작발표

삼성미술문화재단이 제정한 '도의문화저작상'의 제21회 수상작으로 소설부문에 김홍연씨의 「날지 않는 새를 위하여」가, 희곡부문에는 강용준씨의 「좁너」가 각각 선정됐다.

중편소설 「날지 않는 새를 위하여」는 감각적인 문장과 충격적인 장면전환, 조류의 생태에 대한 과학적인 서술과 소도구의 능숙한 활용이 매우 돋보이는 작품으로 평가받았으며, 장막희곡 「좁너」는 "남해안의 어촌을 무대로 해녀들의 끈질긴 삶을 진솔하게 묘사했고 탄탄한 구성과 인물창조가 돋보였으며 작가의 따뜻한 인간애가 인상적"이라는 심사평을 받았다.

한국번역연구원 창립기념식 가저

올바른 번역문화의 정착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출범한 한국번역연구원(원장 지정숙)이 1월15일 출렁강당에서 창립 기념식을 가졌다.

한국번역연구원은 외국의 우수한 문학작품을 우리말로 바르게 옮기는 일과, 반대로 우리 문학작품을 외국어로 번역해 보급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며, 번역에 관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고 저널을 발행하는 등 번역문화의 기틀을 다질 계획이다. 이런 사업을 펼치기 위해 연구원은 연구위원체제로 운영되는데, 지정숙원장이 프랑수를 맡게되며 이보애씨(일본어·펜클럽 회원) 유혜자씨(독일어) 르브뤽씨(프랑스어·서강대 교수) 김홍래씨(이탈리아어) 등이 연구위원으로 전문번역을 맡을 예정이다.

한편 개원사업으로는 오는 5월에 프랑스문학협회 회원인 자클린느 레아나씨를 초청해 강연회를 가지게 되며 6월에는 「장미의 이름」 「푸코의 추」로 국내독자들에게 친숙한 움베르토 에코씨를 연사로 한 강연회도 가질 계획이다.

예림당, 주식회사로 재발족해

단행본 아동물을 전문출판해온 도서출판 예림당(대표 나춘호)이 최근 주식회사로 재발족해 새롭게 출발했다.

아동물을 단행본으로 출판하는 출판사로는 처음으로 주식회사가 된 예림당은 73년 11월 아동도서 출판을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약 1천여종의 아동도서를 발간해왔다.